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를 함께 해결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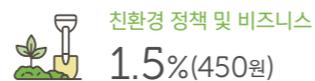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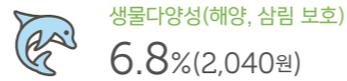
후원자님께 드리는 이 글을 적다가, 문득 작년 연차보고서에 제가 적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2022년이면 팬데믹이 모두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휴가를 즐기고, 가족과 친구들과 마음껏 만나며 아이들도 모두 자유롭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 놀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복잡하고 전 지구적인 문제는 손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구 곳곳은 계속되는 코비드19로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후원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린피스와 함께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후원자님이 보여주신, 지구를 위한 변함 없는 애정과 헌신은 저희 모두에게 크나큰 용기와 영감이 되었습니다.

후원자님의 후원은 그린피스가 하는 모든 활동의 기반입니다. 개인 후원자님들의 후원이 있기에 우리는 전 지구가 직면한 또 다른 복잡한 문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행동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린피스와 같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기업에 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비영리단체들에 후원해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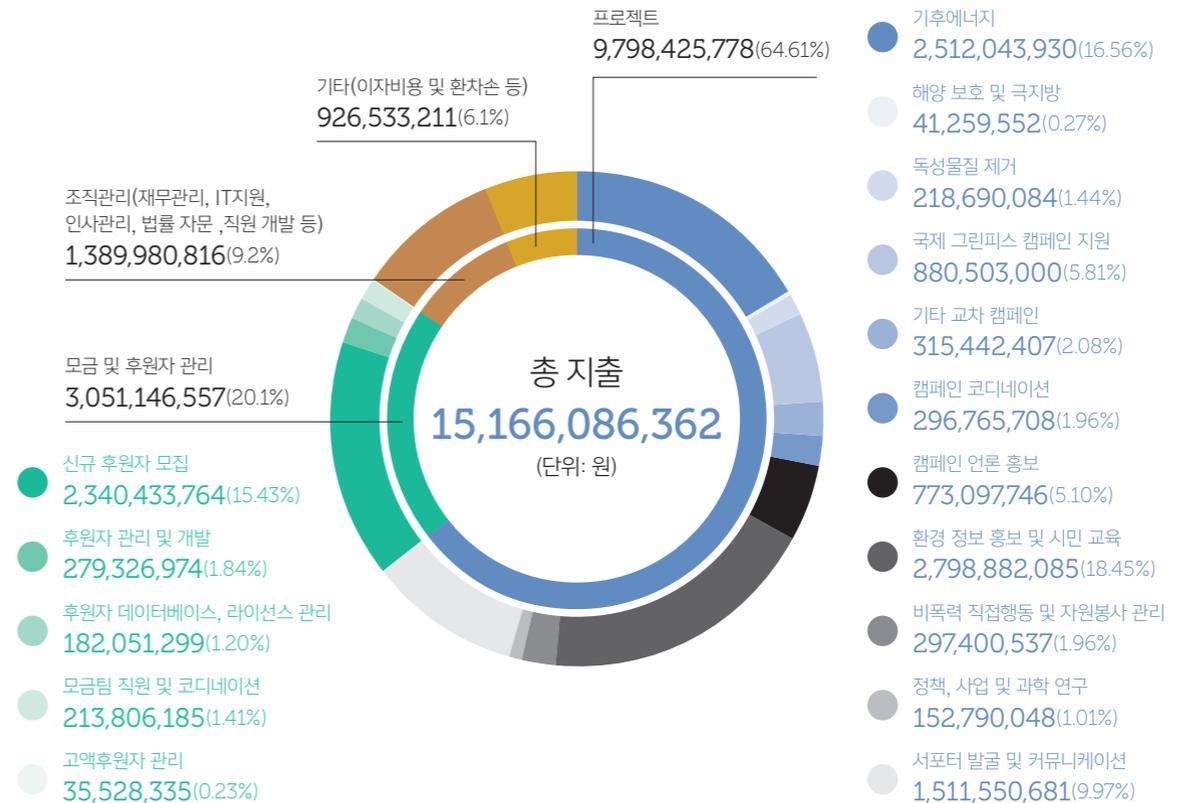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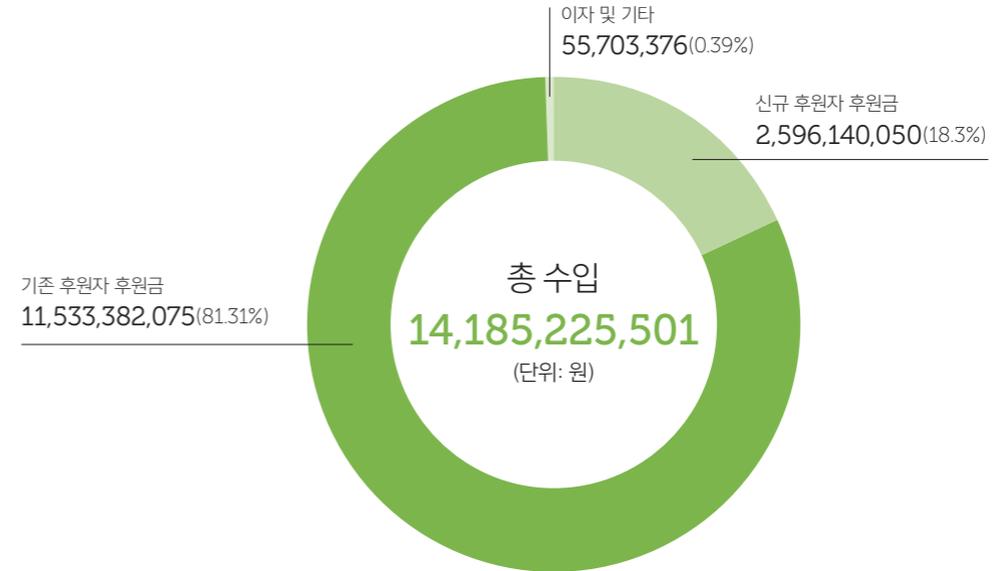
2021년, 우리는 후원자님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더욱 강력한 기후에너지 캠페인을 펼쳤고,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와 해양보호구역 확대,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2021년 연차보고서에 소개된 그린피스가 진행한 캠페인들과 함께 만들어 주신 변화들에 대해 즐겁게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주시는 후원자님들이 있어 우리는 기후위기는 거대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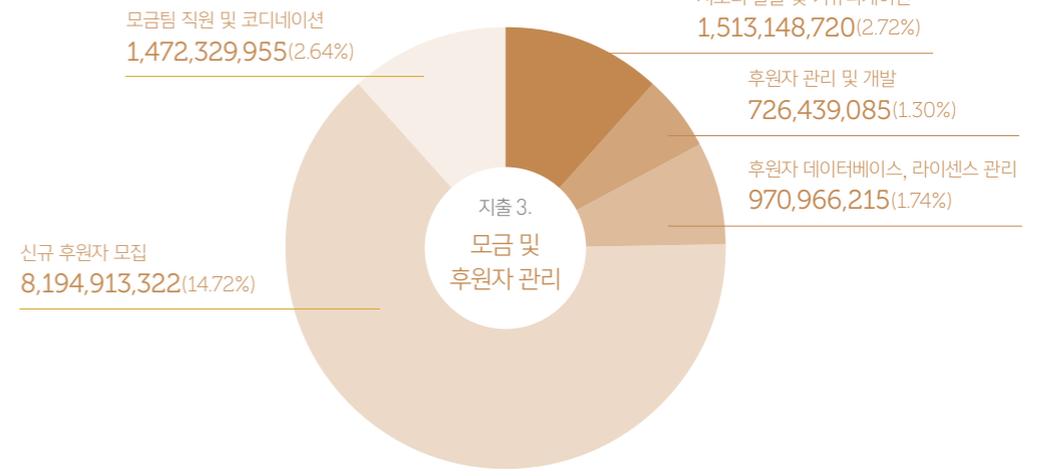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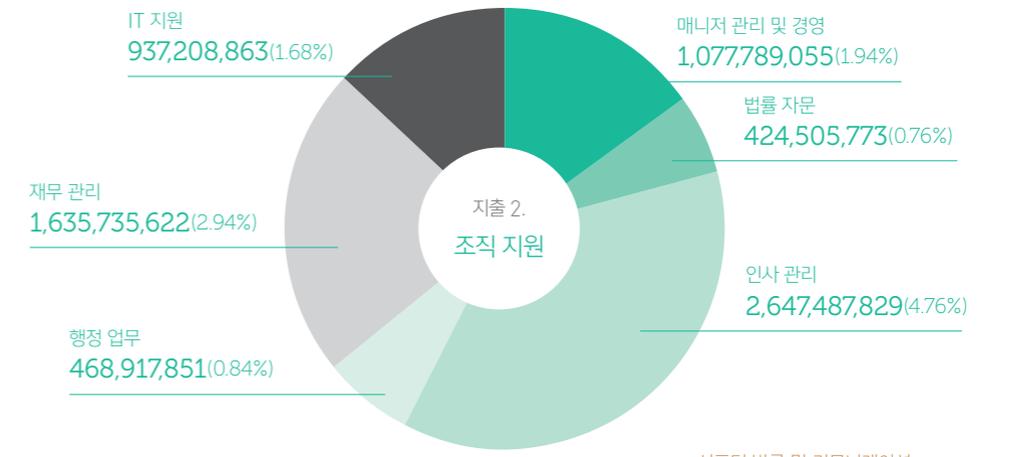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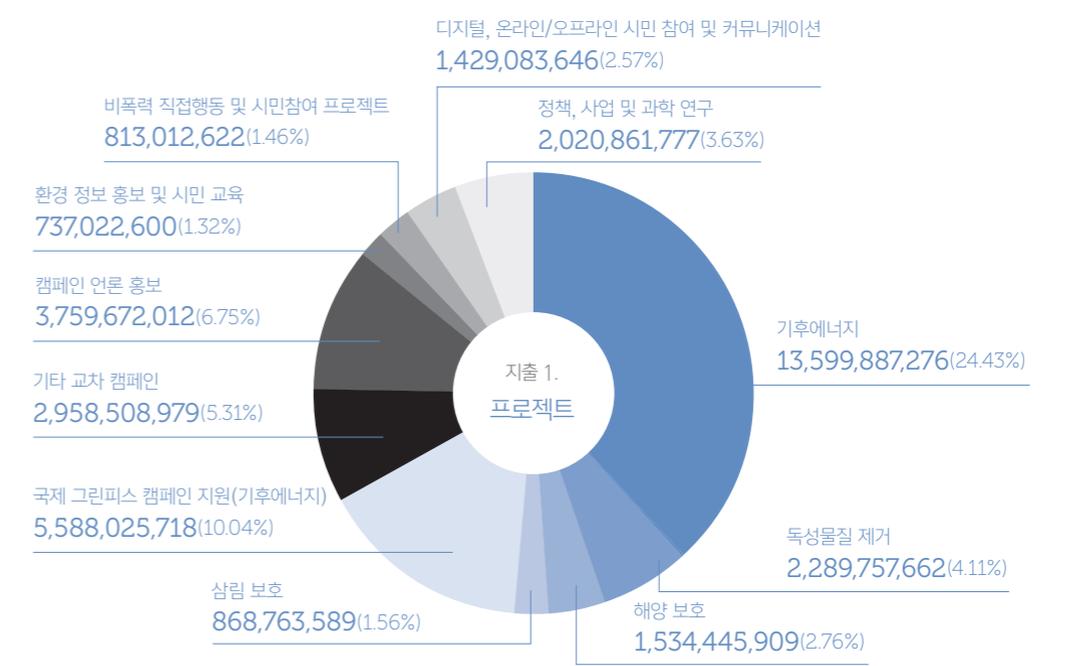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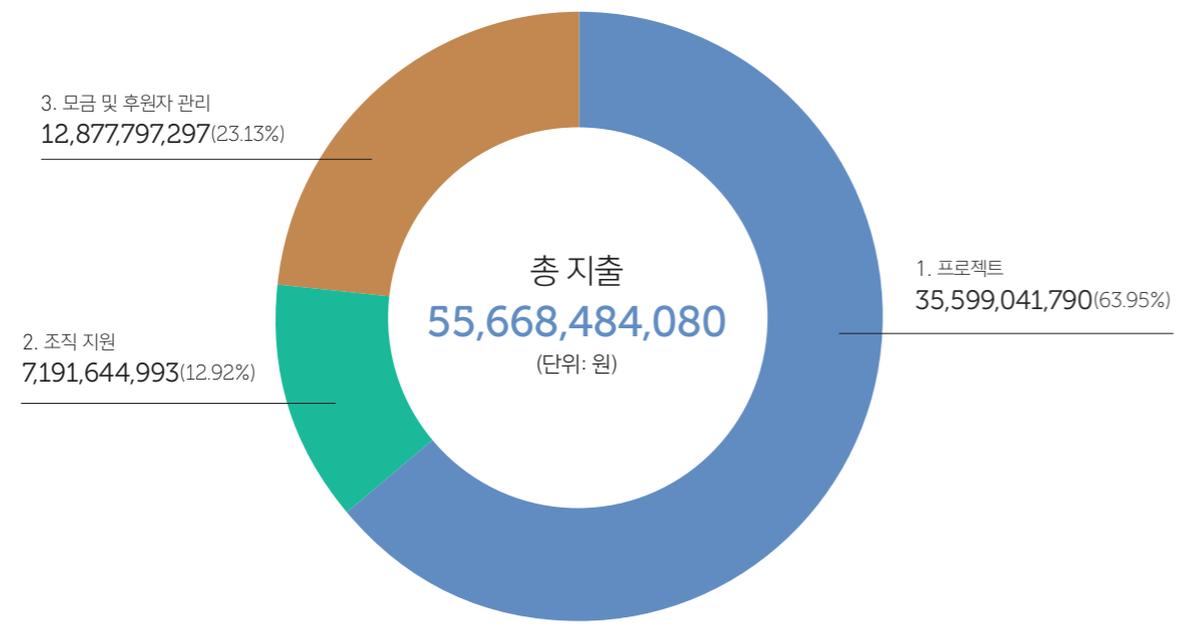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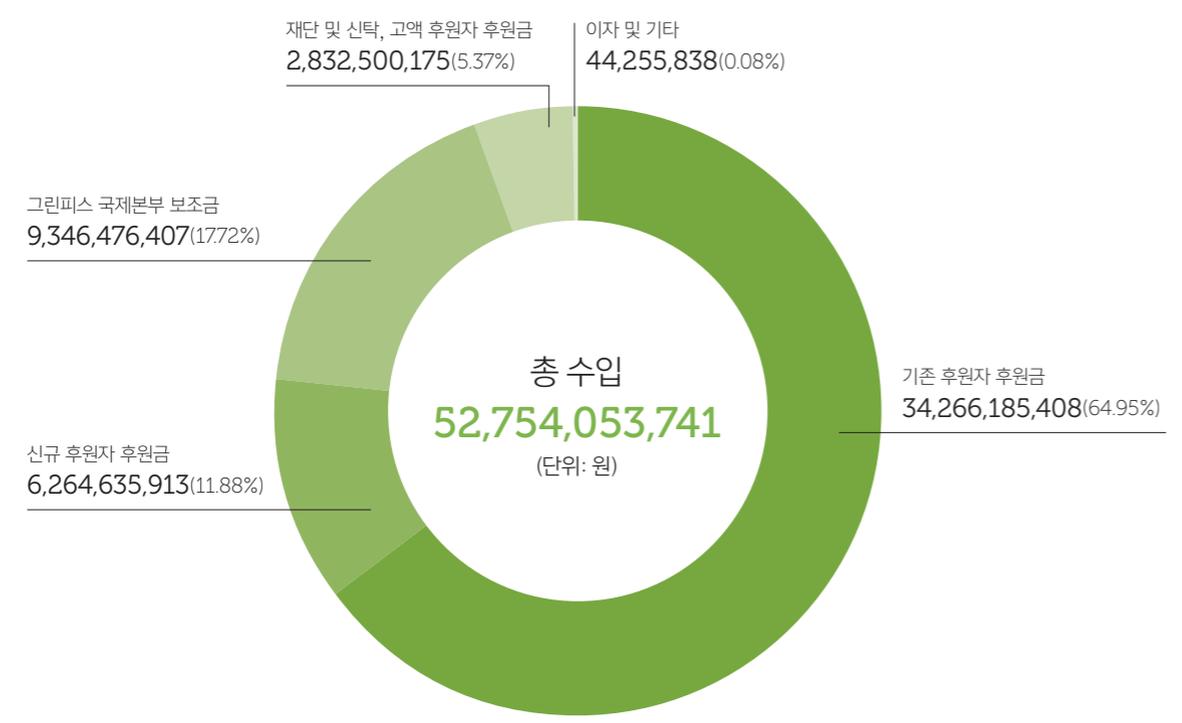
3만 원의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1 2021 서울 사무소 수입 및 지출 내역



2 2021 동아시아 지부 수입 및 지출 내역



3 후원금 상세 지출 비용

기후에너지

총액 13,599,887,276원

지속가능한 기후

— 서울 사무소

에너지 솔루션

1,976,028,368원

탈원전 캠페인

883,336,435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중 인식 강화

573,811,760원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한

시민과의 소통

538,300,239원

서울 사무소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 수년간의 캠페인 끝에, 한국의 여당은 202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2021년에는 정책 입안자들이 기후 행동에 나설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습니다.
- '그린뉴딜 시민행동'팀과 함께 300명의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모니터링하고, 국가가 제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감시했습니다. 지속적인 시민의 요구에 국회는 9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편지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전국 14,000명 이상의 초등학교 생들이 동참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 <한-중-일 ICT 랭킹 보고서, '탈탄소 경쟁,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중-일 ICT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 발표 후 일본의 소니(Sony)가 기존의 탄소중립 목표를 10년 빨리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른 동종기업 역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개인이 일상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로해' 캠페인을 3개월간 진행했으며, 2,000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탈원전 캠페인:

- 서울 사무소의 탈원전 캠페인은 1년 동안 한국 내 원전의 위험성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핵발전에 관한 거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과 맞섰습니다.
- 2021년 7월,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탈원전으로 대정전이 올 것이며,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가짜 뉴스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토론회는 500명의 시민과 함께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후,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입장과 같은 정보와 데이터를 발표했고, 가짜 뉴스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 내부고발자가 월성 원전 1기 방사성 물질 누설을 알렸고, 그린피스는 기자회견과 비폭력 직접행동을 즉시 진행해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 월성 원전 문제를 알리기 위해, KBS를 포함한 국내 방송사와 협력했습니다. 특히 KBS와는 원자력 발전은 잘못된 해결책이라는 내용의 짧은 다큐멘타리를 제작해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중 인식 강화:

- 기후위기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식량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2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하여 한국 생물다양성 재단, 매거진B와 함께 <사라지는 것들의 초상>이라는 보고서를 '식량'과 '한국 생태계' 부분으로 나눠 발행했습니다.
- 기후위기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서해 해변의 샌드 아트 액션과 삼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미디어 아트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식품 가격의 관계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렸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액션과 콘텐츠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얻어, 기후위기 문제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 기후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농부들의 목소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여러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식량 안보와 생태계 변화 문제를 알렸으며, 총조회수 1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한 시민과의 소통:

-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후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전시회를 3주간 진행했으며, 25,183명의 시민들이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 국내 1위 온라인 교사 연수 플랫폼과 협력해 15개의 환경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사들에게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대한 지식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온라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과 보다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해 향후 더 많은 학교에서 깊이 있는 환경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후

— 타이베이 사무소

에너지 솔루션

1,709,986,496원

도시 기후비상 대책

1,394,075,200원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334,801,343원

친환경 자동차

1,627,884,830원

지속가능한 기후

— 도쿄 사무소

1,365,865,888원

타이베이 사무소는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해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및 기후 교육:

-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기후 대응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탄소국경세 영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대만 정부가 탄소배출권 규제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로드맵에 발맞출 것을 요구하는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요 탄소배출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기후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50개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이 그린피스의 RE10X10 기후 선언에 동참하고 2025년까지 사용 에너지의 1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RE10X10에 동참한 기업들을 초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에너지 전환의 비전과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연말 공유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 2020년에 진행했던 교사 설문조사 및 사전 교류에 이어 녹색 미래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기후변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출시하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24개 제작했습니다. 출시 후 8개월 동안 240명 이상의 교사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경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전문가들과 협업해 온라인 교육 시리즈를 진행해 1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도시 기후비상 대책:

- 해수면상승과 폭풍 해일이 대만의 도시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온라인 생방향 플랫폼을 제작했습니다. 1,400km에 달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12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이 조사는 많은 언론에 보도되어 대중과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 수개월간의 캠페인 끝에 대만의 4개 지방정부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그중 2곳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새로운 목표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국민투표를 앞두고 탈핵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작업을 재개하려던 대만의 4차 원자력 발전소의 시도는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 식품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고기 없는 날 행사에 다양한 브랜드의 700명의 직원들과 6,2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이 행사로 총 20,000kg의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테이크 1천 개 분량)
- 채식 식단을 대중화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 및 주요 인물루언서, 레스토랑들과 협력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이 콘텐트는 온라인에서 7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 산과 해변 청소 이벤트, 워크숍, 독서클럽, 베틀시장, 대중 강연 등 77건의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49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했으며, 2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 젊은 세대가 기후 행동에 동참하고 정부에 기후 정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대만 청소년 기후연맹(Taiwan Youth Climate Alliance) 등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업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폐지, 공공망의 탈탄소화,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2021년 현대,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르노, 닛산, 다임러, 포드, 스텔란티스, 도요타 등 글로벌 10대 자동차 회사 친환경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동차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도요타 CEO의 기자회견에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9월에 현대자동차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했습니다.
-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서울, 도쿄, 베이징 사무소가 협력해 유럽 사무소와 캠페인 전략을 공유하며 업계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 한국, 중국, 일본에서 자동차 업계가 지역 탄소 배출과 환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발표하고 정책입안자와 업계가 전기차로 전환해 친환경 공급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 한국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이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산업 종사자 노동조합과 5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현대, 기아, GM 직원들이 참가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기후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지방 정부와 자치단체가 야심 찬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배출 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 도쿄 도청의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RE100% 도쿄> 로드맵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 시민 사회 및 미디어와 협력해 1,000명 이상의 회원들과 함께 '탄소제로 연합'을 조직하고 매주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강의 및 지역사회 기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해수면 상승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온라인 쌍방향 지도를 제작하고 기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방 정부 및 자치단체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의 공영방송 NHK를 비롯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후속 보도가 이어졌고, 기후 문제를 선거 의제에 성공적으로 담았습니다.
- 생물다양성과 기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저명한 과학자와 함께 비디오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 수년간의 지속적인 캠페인 끝에 일본의 7개 지방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수정하고 400만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탄소중립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후

— 베이징 사무소

1,152,757,595원

- 중국 30개 성에서 탄소 배출 추세를 추적하고 분석해 저탄소 전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안을 제시했습니다.
- 팬데믹 후 중국의 경기 부양 조치와 인프라 투자 및 잠재적인 환경 위험, 녹색 투자 경향에 대해 분석하고 3개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해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중국의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의 기회를 조사 및 연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함께 중국이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물론 경제 발전과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관련 이해 관계자 회의 및 세미나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 수년간 진행된 캠페인과 소통에 힘입어 그린피스는 지역의 에너지 전환 논의를 성공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물론, 이해 관계자가 에너지 구조 전환에 적응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중국은 더 이상 해외에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기후 대응

1,131,890,258원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아시아지역에 신속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 지역 및 글로벌 기상 이변 및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에 기반을 둔 3명의 핵심 팀원과 유럽에 기반을 둔 기후 및 기상 분석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시아 7개 주요 도시의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폭풍 해일이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여 정부와 기업에 즉각적인 기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하계올림픽을 전후로 동아시아의 극심한 폭염에 대해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 열대성 저기압 활동, 모래 폭풍, 가뭄, 겨울 폭풍과 같은 동아시아 기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소통 방향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오피니언 리더 및 인플루언서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 1년 동안 15개의 지역 및 글로벌 기상 이변 및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도시의 기후 변화 적응과 회복력,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행동에 대해 논했습니다.

도시 기후 및 에너지 솔루션

— 홍콩 사무소

335,349,399원

홍콩 탄소 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행동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정부의 기후 행동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부각하기 위해 대학과 함께 공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19개 관련 단체와 함께 기후 정책에 대한 서명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 이 캠페인은 높은 관심을 얻었으며, 홍콩의 모든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책 제안 중 일부는 정부가 2021년에 발표한 기후 행동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 이해 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시작하여 기후변화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렸습니다.
- 40개 이상의 커피숍과 협력하여 기후가 커피 맛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렸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함께 커피 시음회 및 세미나를 개최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홍콩의 연예인이자 아마추어 농부인 조이 레옹과 함께 “음식 박물관”이라는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현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미래에 기후 변화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며 130,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석탄, 수질 및 대기 오염

210,804,431원

-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와 협력해 대기질 및 화석 연료 사용의 글로벌 추세를 추적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갔습니다. 글로벌 대기 오염 팀은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대기질 정보 플랫폼 IQAir와 협력해 대기 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 쌍방향 플랫폼을 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업데이트한 최신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보고서인 <2021년 세계 대기질 보고서(World Air Quality Report)>를 발간했습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17개 국가 및 지역과 6,475개 도시 중 3%만이 WHO의 기준을 충족했으며, 아시아는 여전히 대기질이 가장 나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3,100건 이상 보도되었으며 약 40억 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로비 활동에 견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 32명의 인도네시아 시민이 진행하는 기후소송을 지원했습니다. 시민들은 도시의 대기 오염 악화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기후 소송을 시작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3명의 각료 등 고위 관리들을 함께 법정에 세웠습니다. 2년간의 소송 결과, 법원은 공기질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가 지방 정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 기후 행동에 큰 승리를 의미합니다.
-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 및 탄소 배출의 연관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온라인 콘텐츠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방사성 오염

209,532,474원

- 2021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린피스는 원전 사고 이후 현지 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왔습니다. 조사팀은 지난 10년간 총 32회 조사를 진행했으며, 원자력 전문가와 조사단이 현장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 연구 보고서 <2011-202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현실>를 발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방사성 오염 문제를 알렸습니다. 18년간 GE(제너럴 일렉트릭) 원자력 사업부에서 원전 기술 책임으로 일했던 컨설팅 엔지니어 사토시 사토와 협력해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기술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본 정부의 현재 폐기 계획은 30-40년 안에 달성하기 어려우며 현재 부지를 사고 전으로 100%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태평양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사기구, 유엔인권위원회, 태평양제도포럼 등과 같은 단체를 통해 지속해서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캠페인은 전 세계에 언론에 보도되며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얻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와 관련된 인물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콘텐츠 18편을 발간해 원전 사고로 인한 장기적 위험과 재건의 어려움을 알리고 탈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투자

— 베이징 사무소

205,462,560원

- 수년간 중국의 ICT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것을 촉구한 결과,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GDS, 상하이 데이터 포트 등 5개 중국의 거대 ICT 기업 및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발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알리바바 대표를 비롯한 업계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 중국의 22개 주요 기술 기업들이 탄소 배출 감축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순위를 매기는 3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업계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고급 정책 세미나를 두 차례 개최하고 30명 이상의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업계의 목표를 높이는 한편, 재생에너지의 지역 간 거래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한 규정 설립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독성물질 제거

총액 2,289,757,662원

플라스틱 프리

서울, 타이베이, 홍콩 및 도쿄 사무소는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통해 대중과 언론, 정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거대 식품 소비자 기업들을 상대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대 식품 소비자 기업 5곳의 플라스틱 사용 및 감축 계획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 3곳의 거대 식품 기업을 상대로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하고 기업에 플라스틱 사용량 공개와 감축 로드맵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 841가구, 2,671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정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알아보는 '플라스틱 집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사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 캠페인을 진행하며 압력을 가한 결과, 롯데칠성이 3년간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공개한 첫 번째 기업이 되었습니다. 롯데제과 역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 용기 사용량을 25%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매년 350톤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의 문제를 알기 쉽게 소개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전 세계 150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

721,245,099원

- 대만의 대형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3년간 캠페인을 펼치고, 더욱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주요 인물루언서와 협력해 플라스틱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친 결과 22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 '플라스틱 프리 동맹'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타이중시 및 54명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와 협력해 플라스틱 제로 라이프스타일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을 소개하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었으며, 이 지도는 237,000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10개 이상 미디어에 보도되었습니다.
- 2021년 6월 환경보호청과 지역 환경부, 패스트푸드 체인, 카페 체인, 소매업체 대표를 포함해 330명이 넘는 참가자와 함께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재사용 프로그램 확대를 장려했습니다.
- 타이중시에서 20개 이상 지역 상점과 제휴해 3개월 동안 컵 대어 시스템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중과 기업, 당국의 인정을 받아 컵 대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타이베이시와 원린시를 포함한 시 정부와 타이난 맥도날드 역시 타이중시의 컵 대어 시스템 성공에 영향을 받아 자체 컵 대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편의점 체인인 웨이리 마트와 함께 컵 대어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22년 말까지 대만 전국 매장 400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매점 및 카페 체인에서 재사용 컵 대어 및 반환 프로그램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실용적이며, 더 폭넓은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동종업계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홍콩 사무소

530,543,791원

- 지역 환경단체와 협력해 홍콩 정부에 2025년까지 식당 및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완전히 규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에 규제에 대한 공개 협의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9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외식.테이크아웃 일회용 식기 유통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홍콩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매년 5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테이크아웃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지역 시민들은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홍콩 농촌 하천에서 최초로 미세 플라스틱 조사를 실시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홍콩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 상점 및 식당,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지역 파트너와 꾸준히 협력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린피스는 1,100개 이상의 플라스틱 없는 매장을 모집해 2건의 공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식기 및 포장 재사용을 홍보하였으며 1,000여 명 이상 시민들이 동참해 총 1,500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를 절약했습니다.

도쿄 사무소

122,006,018원

- 근본적인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기업에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재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홍보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 도쿄 환경국과 교토 가메오카시의 지원을 받아 대기업 대표, 지역 공무원, 지식인 단체, 언론 및 시민을 포함해 800명이 넘는 참가자와 함께 온라인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를 공동 조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활동은 정치권 및 비즈니스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추후 플라스틱 규제 정책 수립 및 강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인한 환경 문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스타벅스 재팬을 상대로 플라스틱 감축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중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 2021년 6월 마침내 스타벅스 재팬이 일부 지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컵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을 소개하는 온라인 생방송 지도를 제작했으며, 몇 달 사이에 시민들이 500개가 넘는 플라스틱 제로 매장을 직접 등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시 순환 경제

— 베이징 사무소

367,271,272원

- 중국의 저탄소 도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홍보하고, 정책 목표 수립을 통해 도시를 위한 순환 경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중에 순환 경제와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 관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현황과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 자원 관리, 기술 개발 및 규제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는 2건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정부에 기술 분석, 탄소 배출 분석, 비용추정, 경제-환경 종합편익 등을 담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구 보고서 결과와 결합해 중앙-지방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780,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습니다.

해양 보호

총액 1,534,445,909원

해양 보호

582,748,294원

- 2030년까지 최소 30%의 바다를 보호한다는 최종 목표(30x30)를 가지고 UN에서 강력한 글로벌 해양 조약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 그린피스 해양감시선과 과학자들은 바다가 처한 위협을 폭로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원정대는 불법 어업을 폭로하고 기록하기 위해 태평양과 인도양을 항해했으며 위협받는 핑귄 서식지를 조사하기 위해 남극 항해를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들은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아 세계 지도자들에게 해양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 2022년 3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다양한 정도로 보호한다는 30x30 목표를 지지했습니다. 동아시아 31만 명(한국 13만 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거의 500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와 협력하여 추진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린피스 캠페이너들은 공해의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4차 유엔정부간협의회(IGC4)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30x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대표와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아프리카 국가, 태평양 섬 국가, 카리브해 국가 및 일부 EU 국가의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지방 정부가 30x30 목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성공적으로 지역의 대중 인식을 높였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P4G 정상 회의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P4G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공식적으로 30X30 해양보호구역 지정 지지를 선언하고 '세계해양연합'에 가입했습니다.
- 서울 사무소는 해양 동물들을 활용한 MBTI 테스트를 제작해 바다와 해양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SNS 콘텐츠를 제작하여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 바다가 처한 위기를 알리기 위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사무소는 유명한 서핑 강사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서핑 가이드를 출판하고 단편 영화를 촬영하여 3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연안 해역 및 원양에서의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2030년까지 대만 연안 해역의 30%를 보호하는 해양 보호 구역 설정을 목표로 대만 해양 생태계 보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 전문가 및 전문 기관과 협력해 대만의 해양 생물 다양성이 직면한 위협과 지역 양식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폭로하는 두 개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2022년 4월, 16개 대만 환경 단체와 여러 현지 전문가, 학자 및 환경 변호사와 함께 해양 보존법 초안을 만들어 제안했으며 여러 정당의 20명 이상의 의원들로부터 성공적으로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는 대만 바다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해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팁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해산물 핸드북>을 발행해 2만 건 이상의 조회수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 25척의 어선, 35명의 어부, 약 60명의 잠수부 및 자원봉사자와 협력해 지역 해양 보호 구역에서 수중 청소 이벤트를 진행해 422kg에 달하는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이는 해양보호구역의 부실한 관리를 대중에 알리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 불법 조업 활동에 대한 심층 조사를 위해 미국 및 동남아시아 사무소와 함께 장기적인 팀을 조직했습니다. 2021년 5월, 대만 어선 5척이 불법 어업활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대만 시민단체, 전 인도네시아 어부 70명, 미국의 고객 등 10,000건 이상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만 정부에 어업 관리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수개월간의 활동 끝에 정부는 2022년 초 불법에 연루된 대만 어선의 책임자를 기소했습니다. 이는 대만 원양어업의 근본적 정책 변화를 위한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베이징 사무소

5,227,475원

- 중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원양어업 관리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기구와 협업체 공동 포럼을 조직하고, 불법 어업 관행을 막기 위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좀 더 신속하게 법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산림 보호

총액 868,763,589원

글로벌 산림 보호 및 생물다양성

868,763,589원

-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각국 정부에 산림 보호를 위한 압력을 가하는 글로벌 청원에 동참해 시민들과 함께 숲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 기업형 농업을 위한 농지 확장을 위해 대규모 삼림 벌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해, 고기를 줄이고 채식을 늘리는 등 일상 속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해 유엔 사무국, 주요 실무그룹, 여러 NGO, 언론 등 주요 관계자와 관계를 구축하고, 다른 환경단체들과 중국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 생물다양성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큐멘터리, 삼림 관리인 인터뷰, 단편영화 3부작 시리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 베이징 사무소는 아시아 코끼리 서식지 복원에 대한 현지 조사 및 과학 연구를 지속해서 지원했습니다. 2021년 원난성의 길 잃은 코끼리가 국제적 주목을 받으며 대중의 관심을 얻자,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림 보호 권장 사항을 받아들이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교차 캠페인

총액 2,958,508,979원

도시 개발

— 홍콩 사무소

1,149,789,811원

홍콩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홍콩 정부의 대규모 매립 사업인 '란타우 투모로우(Lantau Tomorrow)' 프로젝트는 소중한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피스는 176,000명 이상의 시민들과 함께 란타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보다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인 재개발용 토지 개발을 우선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불법 사용되고 있는 재개발용 토지 실태를 폭로하는 3개의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380헥타르에 달하는 재개발용 토지가 정부 자료에서 누락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미디어에 게재되며 대중과 언론의 커다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재개발용 토지 관련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했습니다.
- 2개월간의 현장 조사 결과, 최소 35곳의 재개발용 토지에서 '전자폐기물 산'이 발견됐습니다. 이 조사는 115건 이상 언론 보도를 기록했고, 정부에 압력을 가해 토지 소유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하도록 했습니다.
- 더 많은 사람들이 란타우 보호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콩의 재개발용 토지 현황에 대한 사실 기반 증거를 제공하는 다수의 온라인 강연 및 공개 참여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 7개 지역 NGO 및 단체와 협력하여 홍콩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으며, 일부 그린벨트의 토지를 개발 용도로 재지정하려는 정부를 막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제안은 취소되었습니다.
- 14개 NGO 및 지역 환경 단체와 협력해 홍콩 정부가 란타우 투모로우 프로젝트의 포괄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주요 의사 결정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해 캠페인에 힘을 더했습니다.

기후 공동체

이해 관계자 협업

613,344,264원

- 대중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 기반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제작자와 협력해 40개 이상 비디오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기후위기의 영향과 인권, 해양 보호,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상기후를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 기후위기를 주제로 유명 디자이너와 함께 보드게임을 제작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 지역사회 대표, 이해 관계자 및 지역 환경운동가들을 초대해 다수의 문화 살롱을 개최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많은 지역사회 시민들이 환경운동가가 되어 환경 보호를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환경 과학

— 베이징 사무소

610,553,878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미-중 기후 대화, 2021-2022 글로벌 에너지 위기, 제26차 유엔 기후협약(COP26),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OP26) 등 주요 국제 환경 이슈에 대응해,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기사를 발행하고 기후 위기와 관련된 대중의 인식과 관심을 높였습니다.
- 미디어, 이해관계자, NGO가 기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해 매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지역 미디어, 학술 기관, 창조 산업 및 NGO 분야에서 60명 이상의 대표들과 함께 기후 관련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콘텐츠의 질을 높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50주년 기념

584,821,026원

- 2021년은 그린피스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그린피스의 환경 캠페인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함께 지구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 도쿄 사무소는 'Next100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대중에게 100년 후 아이들을 위해 미래의 비전을 갖고 행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유명 연예인 미즈하라 키코를 비롯해 환경 운동가와 배우 등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자연과 동물 권리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서울 사무소는 조선희 사진작가, 월간 잡지 더블유 코리아와 함께 이정재, 한예리, 권유리, 이선균, 차학연, 윤승아, 류승룡, 박진희, 장운주, 이광수 등 총 10명의 스타들이 함께하는 50주년 기념 화보를 촬영했습니다. 이번 화보는 기후위기의 위험성과 해결책을 화보 형식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 베이징 사무소는 그린피스의 역사와 활동을 사진으로 담은 기념 전시회를 개최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공개 살롱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제 그린피스 활동 지원

총액 5,588,025,718원

기후 보호

4,732,147,382원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생활, 지역 사회 참여 및 시민 참여 봉사 활동에 중점을 두고 그린피스 동남아시아지부의 캠페인을 지원했습니다.

방콕:

- 깨끗한 공기를 누릴 시민들의 기본 권리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재생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보호 및 소비자 보호 등의 주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 조직 연합인 태국 솔라 펀드와 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 펀드의 목표는 정부, 민간, 기업 및 기관 등 시설 옥상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확장하기 위한 자원을 모으는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펀드를 통해 2022년 3월까지 태국 전국 7개 공립 병원과 5개 대학에 태양광 옥상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자카르타:

- 대중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NGO와의 협력을 통한 기후, 생물다양성 및 인간 친화적 미래를 위한 시스템 전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수개월에 걸친 캠페인 끝에, 정부는 토착 원주민 소유 토지의 팜유 농장 허가를 취소하고 현지 원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 인도네시아의 50곳이 넘는 지역 시민 단체들과 협업해 반부패 이슈, 기후 위기, 표현의 자유, 기타 민주주의 및 인권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마닐라:

- 다양한 청소년 리더십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 활동 이벤트를 진행해 17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 기후정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필리핀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필리핀 전역의 더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지방 정부가 기후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기후 비상사태'선언을 촉구했습니다. 2021년, 새로 선출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주요 대선 후보가 녹색 미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 말레이시아 슬랑오르주의 모든 숲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검토에 참여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8,000년 된 숲이자 문화유산이며 지역 토착민들의 고향인 쿠알라 랑갓 북부 산림 보호 구역에 포함된 모든 슬랑오르주의 숲을 보호하겠다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 환경 문제 및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 수집, 법률 업무, 잠재적 동맹과의 협력 등 소송 사전 준비 및 조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제적 조사 및 캠페인

855,878,336원

-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COVID-19로 인한 급격한 변화, 또 팬데믹 이후 세계에 대응하며 전 세계 사무소와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창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캠페인과 정보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그린피스 기후위기 캠페인의 강점과 강력한 목표를 알렸습니다.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화석 연료 업계의 그린 워싱 뒤에 숨은 진실을 폭로하고 액티비스트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환경 약화, 불평등과 갈등의 표면적 증상 해결을 넘어, 이런 현상을 지속시키는 근본 원인과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내부 모니터링 및 프로젝트 평가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무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캠페인 지원

총액 8,759,652,657원

1. 미디어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총액 5,925,778,258원

▶ 캠페인 언론 홍보

2,431,989,065원

- 서울, 홍콩, 타이베이, 베이징, 도쿄 사무소의 28개 환경 프로젝트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25명의 커뮤니케이션 스태프가 다양한 외부 미디어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합니다.
-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캠페인을 알려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해 캠페인 메시지와 정보를 알립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인터뷰 진행, 국내외 미디어 출연 및 보도자료 전달 등 활동을 진행합니다.
-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동아시아 지역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모든 환경 보호 프로젝트와 그린피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조직의 이미지 및 가치와 일치하도록 브랜드를 구축합니다.
- 자부 내 4개국의 국내외 캠페인 활동 및 환경 관련 기사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키워드, 기사 및 환경 뉴스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브랜드 구축 및 대중 인식 조사

395,444,606원

-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업해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 더 큰 캠페인 영향력을 이끌기 위해 분석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혁신 및 향상을 위해 지원합니다.
- 그린피스의 환경 캠페인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파트너 단체나 개인이 환경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최신 경향을 분석해 그린피스의 활동과 캠페인 메시지, 핵심 가치를 전하는 비디오, 브로슈어, 책자 등을 제작합니다. 학교, 대학교 및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해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알립니다.

▶ 디지털, 온라인·오프라인 시민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1,429,083,646원

- 미디어 정보 분석,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 작업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 관리를 개선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 캠페인에 동참하여 더 큰 변화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디지털을 통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환경 보호 프로젝트 외에도 기후에너지, 북극 보호, 해양 보호, 삼림 보호 등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가 진행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지원하고 참여했습니다. 국경 없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캠페인에 동아시아 지역 시민들이 동참함으로써 정부 및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시장 및 대중 조사를 진행하고, 최신 커뮤니케이션 트렌드에 발맞추어 캠페인 소식을 전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소통 방식을 위해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 환경 문제 관련 데이터 분석

309,389,044원

-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그린피스의 캠페인 메시지를 평가하기 위해 환경 관련 뉴스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을 진행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멀티미디어

622,849,297원

- 환경파괴 현장을 찾아가 기록하고, 캠페인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 일러스트, 비디오를 제작합니다. 미디어에 그린 피스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배포하는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며, 온라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 후원자 커뮤니케이션

737,022,600원

- 후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차보고서를 5개 국어로 발행하며, 후원자 및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환경 뉴스와 캠페인 소식을 알리기 위해 이메일, 웹사이트, 문자,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정기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합니다. 기후와 인권, 해양 보호, 기술 개발, 동물보호구역, 이상 기후 등 기후 비상사태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기후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2. 비폭력 직접행동 및 시민참여 프로젝트

총액 813,012,622원

▶ 지역 비폭력 직접행동 및 오프라인 시민 참여

225,984,404원

- 비폭력 직접행동(NVDA) 기획 및 실행, 예산 관리 및 법률 평가 등 전반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 액티비스트 개발 및 트레이닝, 시민 조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 환경 교육을 위한 교재 설계 및 자원봉사 활동 조직을 통해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 트레이닝 및 장비

246,838,603원

- 장비 구매 및 관리 등 비폭력 직접행동(NVDA)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했습니다.
- 최신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액션을 진행하며 액티비스트에게 환경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동아시아지부의 액션 및 시민참여 캠페인 팀과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 참고

340,189,615원

- 장비 보관 및 행사용 참고를 운영합니다. (대여비, 관리, 보수)

3.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총액 2,020,861,777원

▶ 지역 조사 및 연구

461,870,715원

- 동아시아지부 내 5개 사무소의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관리합니다.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알리고,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긴급 환경재해를 모니터링해 빠르게 대응하고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록합니다. 항공 촬영 영상을 사용한 환경 범죄 기록, 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치 추적, 선박 추적 등과 같은 혁신적인 연구 및 조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환경 사고나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 등을 모니터링하고 긴급 대응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 연구 역량 개발

100,887,553원

- 장소 스카우팅, 샘플링, 온라인 조사 등 연구를 위한 정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장비 관리, 모범 사례연구, 위험 평가 및 보안 등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 고급 인지과학 적용

920,213,325원

- 환경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시민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급 인지과학(신경 과학, 심리학, 언어학 등)을 캠페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린피스 주요 사무소 전체의 과학적 역량을 강화합니다.
- 포스트 코비드 상황에 대응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사회 구조 변화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 세계 캠페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 총 5명의 팀원이 협력사 및 전 세계 사무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 및 대중 이해, 시스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책 및 외부 업무

284,952,186원

- 그린피스 캠페인과 관련해 각국 정부 및 UN과 연락하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정치계 주요 인사와 조사기관 및 다른 NGO와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 지속가능한 금융 및 사업

252,937,998원

- 비즈니스 관리자를 비롯해 금융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금융 캠페이너로 활동합니다. 환경을 위한 기업의 행동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전문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 공개 비즈니스 포럼 등 투자 및 금융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참여합니다.